

마음이 쉬어야 합니다.  
마음이 쉴 때 온전한 휴식과 변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 성전스님 -

## 불기 2568년 ‘연등회’ 동참, 의료지원 펼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5월 11일~12일 양일 간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연등회’에 참여했다.

11일 진행된 연등행렬는 권범선 병원장, 김동일 한방병원장, 지도법사 능지스님, 교직원불자회 연우회 및 교직원 등이 행렬에 동참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했다. 또한 의료지원과 구급차를 동행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했다.

12일 조계사 앞에서 펼쳐진 전통문화마당에서는 부스를 운영하여 의료지원과 기금 모연 및 병원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많은 불자와 기부자들이 부스를 방문해 격려하고 기금 모연에 동참했다.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협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기관’ 선정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이 지난 4월 24일에 ‘협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시범사업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협약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50% 환자 본인부담률이 40% 완화되어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의 질환만 해당하였던 시범사업 질환이 이번 확대로 인해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엄선된 양질의 한약과 우수한 조제 및 탕전시설에서 제공되는 협약을 통해 건강을 지켜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원내 탕전실을 비롯한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전문 한약사가 조제를 담당하고 있다.

## 1분기 ‘환자가 추천하는 우수교직원상’ 시상, 순금 배지를 부상으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5월 9일에 ‘환자가 추천하는 우수교직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상은 환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친절한 태도로 환자들에게 추천받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여된다. 이번 시상은 비뇨의학과 윤현식 교수, 내분비내과 이승은 교수, 71병동 백지향 간호사, 영상의학과 박한울 전담간호사가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순금 배지를 받았다.

권범선 병원장은 “칭찬 글뿐 아니라 환자경험평가 등 환자들이 직접 설문에 참여하여 선발하는 시상으로 더욱 의미가 있으며, 지금처럼 환자분들에게 힘이 되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교직원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 정심행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 환우와 보호자를 위한 돌봄행사 열어

정심행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지난 4월 25일 환우와 보호자를 위한 돌봄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환우와 보호자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추억을 만들고 지친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환우와 보호자들은 따뜻한 점심을 함께 나눠 먹으며 활력을 얻고 기분 전환과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정심행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앞으로도 매월 1회, 센터 내 가족실에서 돌봄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자비의료실천, 동국대학교병원을 일구는 힘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마음

후원 문의

대외협력홍보팀  
031-961-9000

발전(후원)기금  
기부자

324명

기간 ▶ 2024. 4. 1.~ 4. 30.

동참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             |
|-----------------|-------------|
| 대원스님            | 100,000,000 |
| 이무용 교수          | 10,000,000  |
| 중앙승가대 6기 동문 선람회 | 10,000,000  |
| (주)아라니아 박덕선 대표  | 3,000,000   |
| 동심모금함           | 1,377,350   |
| 지철스님            | 1,200,000   |
| 무현스님            | 1,080,000   |
| (주)우진           | 1,080,000   |
| 덕문스님            | 1,000,000   |
| 외 315명          | (단위 : 원)    |

기부자님이 보여주신 숭고한 뜻을 새기어 생명 존중과 자비 의료를 실천하겠습니다.